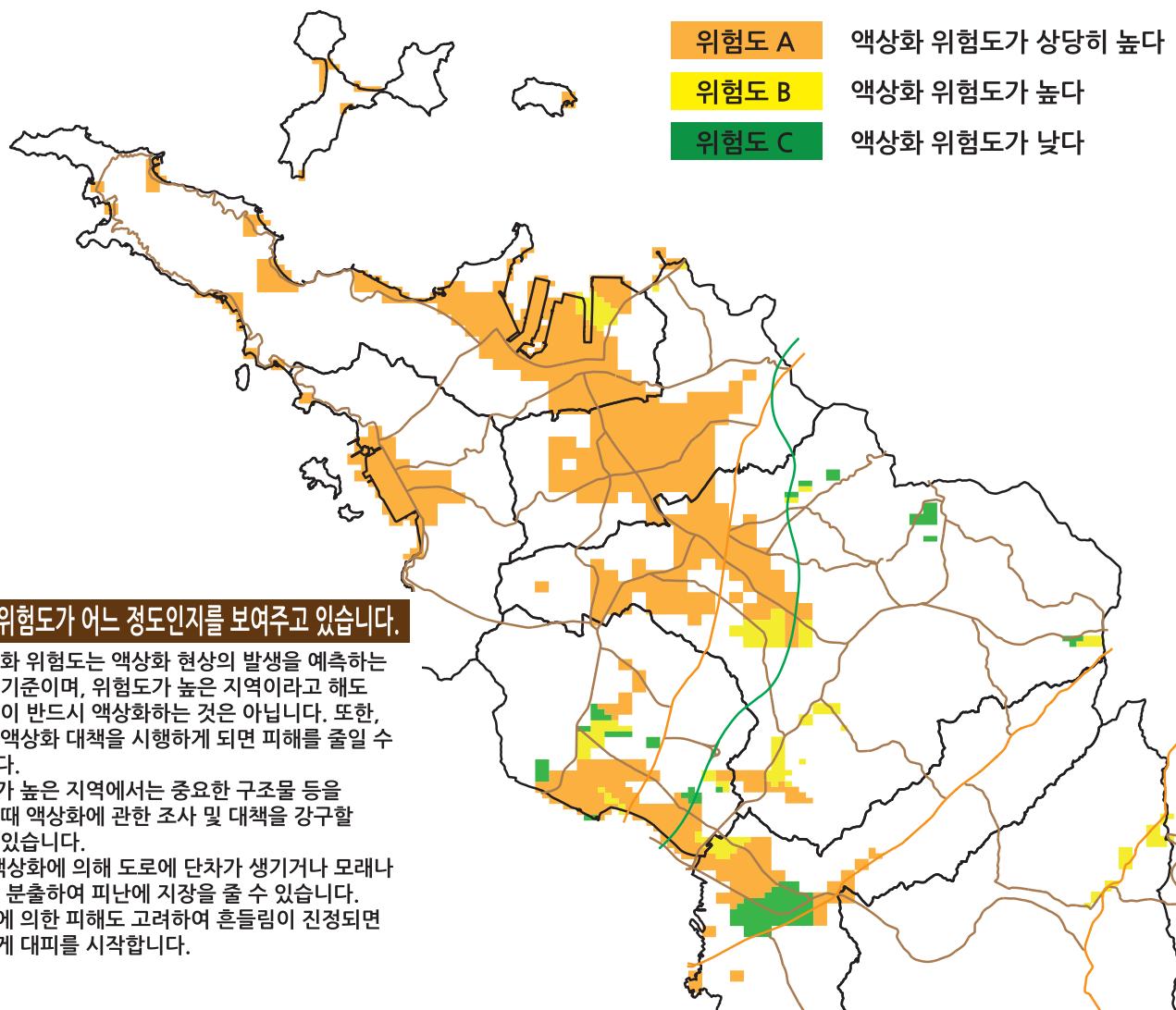




액상화 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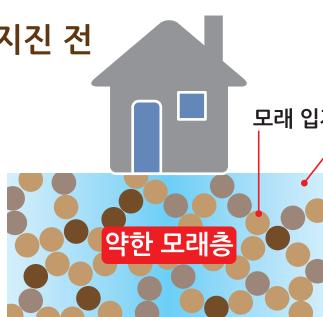
액상화의 예상



액상화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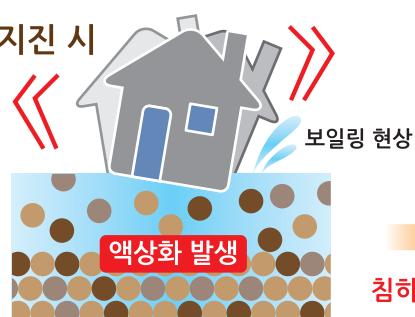
액상화는 지진에 의해 지반이 일시적으로 액체처럼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. 지하 수위가 높고 완만한 모래로 이루어진 지반에, 지진에 의한 강한 흔들림이 더해지면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지진 전



모래 등으로 가볍게 쌓인 지반이며 모래의 입자가 서로 붙어 골격을 만들고 그 사이에 물이 있는 상태. 골격의 강도는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.

지진 시



지진의 흔들림으로 모래 입자의 아래층은 촘촘해지고 위층에서는 액체 상태가 되어 집이 기울기 시작한다. 지표면에서는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

지진 후



지진 후 지반이 침하되어 집이 기울거나 가라앉습니다(부동침하).

지반이 액상화하기 때문에 무거운 건물 등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, 지반 침하, 기울어짐이 일어나거나, 가벼운 맨홀 등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하천 제방과 호안 부근에서는 수 미터에 걸쳐 지반이 유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